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지원

전북교육청,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T/F팀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군산중앙고, 남성고)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일,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공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의 흥미·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해당 학교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성된 T/F팀을 살펴보면 전북교육

청 소속 장학사 8명, 시설과 주무관 1명, 일반고 교감 1명, 일반고 교사 5명 등 총 15명으로 되어 있다.

교육청 장학사는 일반고 관련 업무(교육과정, 교교학제, 평가, 학습자 중심 활동공간, 진로·진학, 학교혁신, 예술교육, 수학·과학 교육 등)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과 주무관은 학교 교육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일반고 교감 및 교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에 해당학교 컨설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T/F팀은 9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각각의 업무 관련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최종안을 완성한 뒤, 해당학교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컨설팅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가 하루빨리 일반고로 자리를 잡고 학생의 진로·적성·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생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창

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성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19일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8월 6일 교육부에 남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요청을 했으며, 교육부가 8월 20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남성고는 군산중앙고와 함께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직장공동체 문화 개선 토론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직장공동체 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소통하고 협업하는 직장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20~21일 이틀간 전주 왕의지빌 컨벤션센터 훈민정음홀에서 '직장공동체 문화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토론회는 첫날은 7급 이하 직원 80여 명이, 둘째 날은 장학사와 6급 직원 80여 명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토론자 7명과 멘토 1명 등 8명이 한 모둠을 이뤄 직장공동체 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와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멘토는 장학사나 일반직 직원 중에서 퍼실리테이션 연수 이수자, 토론진행 유경험자 등을 위촉해 활발하고 공정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원활한 소통과 상호존중, 근무환경, 업무간소화, 회의문화, 보고시스템, 성평등문화, 수평적 관계 등이다. 사전 조사에서도 원활한 소통과 상호존중이 논의하고 싶은 주제 1, 2위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나와 직장이 상생하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구성원 간의 격의없는 토론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교육행정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 결과보고회 '매우만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9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캠프에 참가한 학생, 학부모, 인솔교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캠프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피드백 활동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앞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간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호주 브리즈번 소재 중학교 세 곳에서 해외영어 캠프를 실시했다.

지필평가와 면접평가를 최종 통과한 일반전형 34명, 영어학습 환경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65명 등 총 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호주 현지의 문화와 역사 등을 ESL 수업에서 배우고 주중과 주말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버디 친구들과 함께 정규 학교 수업을 받았다.

또한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영어표현을 직접 배우고 익히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도 키웠다. 캠프가 끝난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영어에 대한 흥미 향상 85%,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 83%, 홈스테이 만족도 87%, 호주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88%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로 13년째 운영되고 있는 중학생 해외영어캠프는 그동안 전북지역 중학생들에게 영어권 국가에서의 체류경험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해왔다"며 "우리 아이들이 영어뿐 아니라 영어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선수들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이기위해 맹훈련을 펼치고 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전북 선수들,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맹훈련'

전북 선수들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이기위해 맹훈련을 펼치고 있다.

20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한창이다.

현재 47개 종목 1367명(선수 1192명·지도자 175명)이 합동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또 도 체육회관 체육단련장에서 전문 지도자의 관리를 받으며 체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임하는 전북

선수단의 각오는 남다르다.

전력하락 폭을 최소화 시켜 지난해 도내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함이다.

이에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수시로 전력분석을 진행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 체육회도 각 종목단체에서 체력단련장과 전북스포츠과학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총감독 간담회 등을 열어 종목별 대책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형원 사무처장 등 도 체육회 임원들도 휴일을 반납하고 훈련장을 돌며 격려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수트레이너(AT)를 각 훈련장 및 전국대회에 파견을 보내고 있으며 도와 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세밀한 전력분석을 통해 전력향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전 종목별 대진추첨은 오는 2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교육청, 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 학교 현장점검

전북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교실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한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에 나선 학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1교, 특수학교 3교 등 총 57교로, 해체·제거 대상 석면면적도 약 4만9549㎡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현장점검에서 비산측정 적정 여부, 정밀 청소, 일일 점검, 적절한 공정관리 여부 등 집중 점검했다. 또한 사전 설명회, 사전청소 및 비닐 밀폐, 고정물 철거, 석면 잔재물 조사 등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 감리인이 상주하지 않은(현장 이탈) 공사장을 적발,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석면 제거 공사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 계약사항,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및 석면 농도 측정, 잔재물 조사 등 공사 현장을 온라인 계시에 게시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학 전까지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벽히 마무리하고 석면 잔재물 조사도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학교의 공사가 완료되면 도내 학교 중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는 전체 1284교 중 465교로 줄어들게 되며,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는 모두 석면을 제거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LINC+,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적극 나서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이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단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과 함께 최근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전통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이 박람회는 여가생활의 확대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열린 것.

LINC+사업단은 전통문화전당과 함께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한지를 이용한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는 체험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했고, 홍보 리플렛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

들에게 전북의 맛과 멋을 알렸다.

박람회를 총괄한 전담 최재형 팀장은 "전당에 입주해 있는 전북대 LINC+사업단 가족 회사들이 참여해 전통문화 공예품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을 하고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많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전주를 방문하겠다는 호응도 얻었다"고 말했다.

고영호 사업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지역 특화산업인 전통문화 관련 가족 회사와 더불어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학생 서포터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